

대장경으로 한마음 이뤘다

1011년 첫 착수 후 중국·일본 대장경의 저본 돼

고려는 거란과 몽골의 침입에 불법의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장경을 간행한다. 부처님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호국을 위해 왕실과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편집자 주>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조판

고려는 제8대 임금인 현종(1009~1031) 원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대장경을 제작한다.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며 이때 제작한 것이 초조대장경이다.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도감(都監)을 두고 <대반야경(大般若經)>(600권) <화엄경(華嚴經)> <금광명경(金光名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 6000여 권의 조성을 시작했다.

전쟁 끝에 거란이 물러가고 1106부 5148권 규모의 대장경판이 완성됐다. 이렇게 완성된 초조대장경은 성종 10년(991년) 한언공(韓彦恭)이 송나라(宋)에서 들여온 480질(帙) 5047권에 달하는 개보판(開寶板)을 토대로 완성한 것이다.

고려는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거란의 대장경까지 참고해 초조대장경을 제작했다. 당시 한역(漢譯) 대장경으로는 동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이었다.

고려는 제23대 고종 임금(1213~1259) 19년인 1232년에 또 다시 몽골의 침입을 받는다. 몽골은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고려 호국의 지의 상징인 장경판을 태워 버린다.

고려는 다시 불법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

겠다고 고려패장경을 조판한다. 이때 조성된 대장경은 다시 조판했다는 의미에서 '재조대장경'이라고도 불린다. 고려대장경은 8만여 판수와 8만 4000번뇌에 해당하는 8만 4000법문을 실었다는 뜻에서 '8만 대장경'으로도 불린다.

고려는 고려대장경 조판을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작에 나섰다. 전국의 학자와 기술자를 동원해 자료를 수집한 고려는 진주에 대장도감 분사를 두고 모든 국력을 동원해 고려대장경을 조판했다.

고려대장경은 8만 1258판을 양면으로 새겼으므로 16만 2516면이 된다. 1512부 6791권의 경전을 수록했다. 경판의 가로 길이는 마구리까지 68~78cm, 세로길이는 24cm, 두께는 2.8cm, 무게는 3.4kg에 달한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당초 강화도에 보관됐으나 왜적들의 침략이 심해지자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가 이후 조선 태조 때(1398년)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된다.

하늘도 감탄한 정성과 정확성

고려대장경은 제작에 있어서 많은 정성과

한치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았다. 30여 전문가들이 각종 이판들과 대교하면서 정밀한 교정 작업을 거쳤다. 글자를 한 자 새길 때마다 절을 했다고 하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겼지만 마치 한 사람이 제작한 것처럼 일정하고도 아름다운 형태의 필체(구양순체)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은 수기 스님이 대장경 내용과 판각을 총지휘했고, 100~200명 정도의 사경승(절에서 불경을 옮겨 쓰는 스님)들이 직접 글씨를 써서 판하(판에 붙여서 인쇄할 내용을 쓴 종이)를 제작했다. 이를 다시 수기 스님과 불교경전에 밝았던 학자 스님들이 모여서 오류를 확인했다.

경판을 새길 나무는 나무질이 일정하고 나무의 조직이 고른 것을 골라 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베어 냈다. 아름드리 나무를 90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1년 이상 묵혀서 진을 뺐다. 베어낸 나무를 바로 사용하면 갈라지고 휘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 제작을 위해 나무를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나무를 소금물에 삶았다. 글자를 새기기 쉽고 보관도 잘 되기 때문이었다.

고려대장경은 4톤 트럭 70대 분량으로 운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운반은 육로 이동설과 해로 이동설이 제기된다.

해인사 대적광전에는 대장경판을 운반하는 모습을 담은 벽화가 있다. 이 벽화에는 운반행렬 맨 앞에 동자가 항로를 들고 걷고, 그 뒤를 스님들이 독경을 하며 행렬을 이끈다. 스

님 뒤에는 경판을 소달구지나 지게에 싣고, 머리에 이기도 하면서 대장경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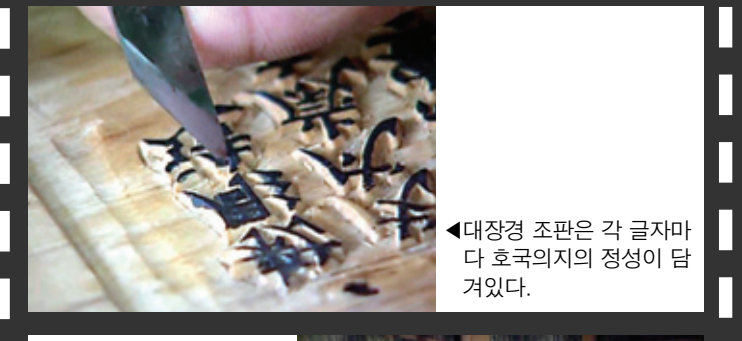
강화도를 떠나 한강에 도착한 배는 다시 남한강을 거쳐 충주에 도착한다. 행렬이 낙동강변에 이르면 대장경을 다시 배에 옮겨 싣고 고령까지 이동했고 다시 육로로 해인사에 들어갔을 것이다.

태조 7년 5월 12일 실록을 살펴보면 "임금이 서간에 행차해 전라 조운선을 시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대장경판이 서울에 도착한지 이틀 뒤의 기록으로 조운선이란 조세로 거둔 쌀을 운반하던 선박이다. 조운선은 길이가 얇은 강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하기 쉬웠고, 해변을 항해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배에는 1척 당 경판 5000장을 실을 수 있어, 20척 정도만 있으면 팔만대장경을 운반하는데 충분했다. 기록에 나타난 조운선은 팔만대장경의 운송수단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자신이 설법한 법과 계율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유언했다. 그러나 부처님이 사라진 상황에서 승가의 안정과 새로운 결속이 필요해진 불교는 불전(佛典)의 결집(結集)을 추진하게 된다. 고려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구심점을 세우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고려대장경 조판을 시행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전결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한 마음과 다를 바 없다.

박기범 기자 smile2@hanmail.net



◀대장경은 나무질이 일정하고 조직이 고른 것을 사용했다.

▶본격적인 서각작업을 위해 판화본을 나무에 옮기는 작업

◀대장경 조판은 각 글자마다 호국의지의 정성이 담겨있다.

▶정종 임금은 경상도 감사에게 명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하는 스님들을 공양하게 했다.

◀스님들이 대장경 조판을 위한 판화본을 작성하고 있다.

출처: KBS 역사스페셜 '5천만자의 하이테크-팔만대장경' 화면 캡처

대장경을 찾아서 ①

일본 남선사에 초조대장경 97%가 있는 이유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대부분이 일본에 보 부터

관된 이유는 뭘까? 남선사(南禪寺)를 포함한 일본 경도 지역 일부 사찰은 고려, 조선과 교류해 왔다. 이를 통해 대장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의 수집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당시 한중일 삼국은 대장경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유행이었다.

일본 남북조시대 중엽 정문(1356~1360)·월암선사(1326~?)에 의해 기반이 잡힌 선창사(禪昌寺)는 남북조가 하나로 합해진 명덕 3년(1392) 응영 원년(應永, 1394)에 축전바다

(筑前博多)의 수하에게 1200권의 원판(元版)대장경을 기부받았다. 경안이 기증한 일체경의 권수는 1/3을 넘지 못했다. 사찰은 이를 구간으로 대장경을 보충하기 위해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응영 7년(1400)에 이르러 고려 초조대장경, 송판경(宋版經), 사경의 대부분을 갖춰 '선창사의 법보 7000권'의 형태가 갖춰졌다. 이후 170년간을 유지하다가 근세에 들어 학문이나 예술이 번성하면서 본산인 남선사 법장으로 옮겨진다. 조선 초기부터는 사신들의 교류가 한층 잦아졌다. 일본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대장경 원본이나 판목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예물을 보내거나 조선인 포로귀환, 양국우호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 승려들은 문안 4년(1447) 4월 남선사에 봉안할 대장경을 요청하기 위해 백하건설원(白河建聖院)의 문계 화상과 정우 등이

직접 조선에 건너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대신 포(布)나 인삼, 호표피 등의 공물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뤄 조선에서 건인사(建仁寺)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1458년 봄에는 일부 대장경이 도착해 보관됐다.

17세기 초에는 남선사 말사 선창사에 소장된 대장경을 남선사로 이관하도록 했다. 애장 19년(1614)에는 남선사에 대장경이 도착해 현재까지 남선사 소장의 5000권 대장경의 토대가 됐다. 당시에도 경전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아 자국 간행의 판본과 송·원 판본과 우리나라 초조 및 재조대장경도 함께 구비됐다. 또 부족분은 사경으로 보충해 완전한 대장경의 모습을 갖췄다.

<참고자료: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상언 기자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삼호 성문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www.donghwasa.net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http://cafe.daum.net/jabihappy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

관장	종상 덕민	교무	정수
학장	종우	재무	종천
선원	종천	사회	종민
총무	정문	포교	성요
기획		호법	각천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